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ORCHEM**

ORchestra  
2025 | Vol.17  
[www.orchem.com](http://www.orchem.com)



**ORchestra**



#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의 언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발 행 처 (주)오알켄  
발 행 일 2025년 7월 1일 (통권 제 17호)  
편집/디자인 김정아  
기 자 단 ORCHEM (본사) 김시연, 최수진  
ORCHEM (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 (베트남법인) Jang  
ORC Solution 박승영, 김준용  
대 표 전 화 031-488-0600  
홈 페이지 www.orchem.com

## CONTENTS

### 01 We are ORCHEM



- 03 ... 전산정보팀 Interview
- 07 ... 신규 입사자 Interview
- 13 ... Special Interview  
[O!Cafe 김해리 매니저]
- 15 ... 중국 법인 '제조기술센터' 소개

### 02 Inside ORCHEM



- 17 ... ORCHEM VIAN 현장 채용 스토리
- 19 ... ESG Slogan 탄생
- 21 ... 구미 O!Clean Day

### 03 ORCHEM-NESS



- 23 ... 2025 1분기 타운홀 미팅  
[CA 3기 일 잘하는 문화 만들기]
- 27 ... Can Meeting  
[구매팀]
- 29 ... ORCHEM VIAN 법률 교육 진행
- 30 ... 오알켄 정결 사무실 만들기
- 31 ...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택배는 사랑을 싣고'
- 35 ... 중국 법인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
- 37 ... ORC Solution 국내 여행지 소개  
[부산편]

### 04



- 39 ... O!News
- 41 ... O!Quiz

# We are ORCHEM

One Team

우리는 한 팀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도전하며 성장해 갑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한 개인의 특출한 역량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우리의 역량으로 완벽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 
- 
- 
- 
- 

Interview

## 전산정보팀을 소개합니다



팀장 | 박정수 책임

팀원 | 고태윤 책임, 구현철 선임, 황소영 선임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용히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전산정보팀!  
가볍게 주고 받는 농담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던 팀이에요,  
전산정보팀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Q.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는 오알켄 내에 있는 전산 시스템과 각종 장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뿐만 아니라 비슷한 장비들까지 다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안되면 다 연락이 옵니다. 고태윤 책임 같은 경우에는 보안 업무, 하드웨어 쪽을 메인으로 담당하시고, 구현철 선임과 황소영 선임은 ERP 시스템이랑 RPA 같은 사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해외 쪽 담당자 교육과 해외 시스템까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 Q. 최근에 진행하신 주요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법인 IT 인프라 개선 관련해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ERP 도입 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팀원들이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전에는 베트남 법인의 장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회의실을 바꿀 때마다 신호도 별도로 잡아야 하고, 무선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했는데, 하나로 통합,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없다시피 한 환경에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당장 저희만 보더라도 베트남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원격으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또 실제 사용자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다 보니 뿌듯함을 느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 Q. IT팀만의 특징이 있다면?

IT 업무 특성 때문에 생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영역이 뚜렷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각자 하는 업무나 분야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요. 우리 팀만 보더라도 저는 하드웨어나 보안 관련 업무가 중심이고, 나머지 분들은 개발 쪽 담당하시고, 크게 IT로 묶여 있지만, 각자 분야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당연한데, 다른 부서의 분들이 보기엔 저희 업무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좀 특이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맡은 분야가 나뉘어 있다 보니 각 영역의 전문가로서 서로 간의 지식의 깊이와 역량을 존중하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의 역량을 쌓기 위해 홀로 담금질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파트너가 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각자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혼자 일하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IT팀의 업무 환경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Q. 2025년도 IT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김남하 전무님께서 현장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하나로 엮는 과정을 일부 진행 중인데, 향후에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가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Q. IT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종종 직원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업무들을 처리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해드리고 나면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덕분에 업무를 하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 작년에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금을 5,000~7,000만 원가량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팀은 아무래도 돈을 버는 부서라기보다는 돈을 써야 하는 부서인데, 이런 지원 사업에 한 번씩 선정되면 부담이 좀 더는 것 같아요.

### Q. IT팀만의 고충이 있다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편의성과 보안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 임직원분들께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한정적인 자원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 Q. 직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제발 비밀번호 좀 그만 잊어버리세요!!!

외근 많이 나가 계시죠? VPN 써서 접속하실 텐데, VPN 시스템은 비밀번호를 5번 이상 틀리면 잠겨요. 로그인하는 페이지에도 적혀있는데, 비밀번호 틀리셔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말에도 가끔가다 한 번씩 전화를 주시는데,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다, 노트북이 느리다, 컴퓨터 교체해 달라는 문의를 많이 받아요. 3년도 안 쓰셨는데, 벌써 느리다면서 교체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 6년 정도 쓰고 있거든요. 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쓰시는데, 더 느리다고 하셔서 의문인 부분이 있지만, 주로 무언가를 많이 설치해서 느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아예 최초부터 설치하지 않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교체 기준도 존재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적화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드리는 게 최선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현장에 많이들 나가 계시다 보니, 외관이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회수해도 다른 사람에게 불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트북 소중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Q.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바라는 점 또는 응원의 한마디를 보낸다면?

#### 박정수 책임

황소영 선임 결혼해서 잘 살고, 구현철 선임은 올해 진급 못 했는데, 내년에는 되겠지? 잘될 거라 믿고, 고태윤 책임은 올해 진급됐으니까, 제가 없을 땐 제 역할을 일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 고태윤 책임

지난해에는 마무리 지어야 하는 프로젝트들에 의한 중압감과 압박감이 있어서 사실 팀보다는 제가 맡은 일을 처리하는 게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압박감이 저보다는 저희 팀원들에게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ERP 안정화나 시스템 개발로 인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랑 다른 업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적다 보니까 미안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 구현철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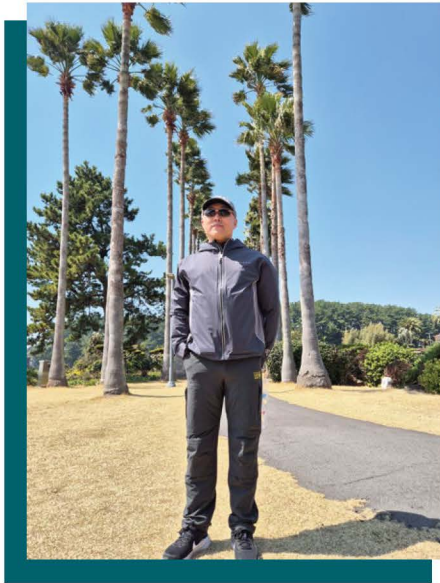
팀장님도 내년에 같이 진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소영 선임

팀원분들 모두 다 잘 알려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팀장님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또래 직원들에게 가서 소영 씨 좀 잘 챙겨주라고 말씀하셨대요. 지금까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 신규 입사자 Interview



## 마케팅 본부

마케팅 기획팀  
이상훈 이사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본부(마케팅 기획팀) 이상훈 이사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오알켄에 합류하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 기판회사 및 약품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업무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 Q.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루틴한 일 보다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일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가 기억납니다만, 고생을 많이 한 업무가 나중에는 가장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진행하면 항상 마주치게 되는 부딪히는 장벽을 아이디어와 의리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 Q. 마케팅·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케팅, 영업 업무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고객 최우선’ 마인드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사고방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및 행동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항상 고객에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 입사하신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오알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알켄은 구성원도 젊고, 조직도 젊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력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또 사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진정으로 미래형 기업의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1층 카페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덕분에 오알켄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Q.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자면?

지난해 연말, 전사 직원들과 함께 베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송년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해오던 제조 현장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내/사외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멋진 음악회까지 누릴 수 있는 날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 진행하며, 오케스트라와 같은 사내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합니다.

### Q. 일 이외에 에너지를 얻는 활동이나 취미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등산을 즐겼습니다만, 요즘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근처에 산책하러 다니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가능한 시간은 주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잡담이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큰 힐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은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자 소중한 존재입니다.

### Q. 마지막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으로 크게 뻗어 나갈 오알켄이 올바르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우선 눈앞의 목표로는 오알켄이 100년 기업이 되는데 노력하고 싶습니다.



## 환경안전팀

원오훈 책임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SM팀 원오훈 책임입니다. 저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진행, PSM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첫 출근 날 기억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안산에 산다는 것을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곳으로의 첫걸음 이기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알캠에서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안전교육을 하면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한 것과 관공서 수검(노동부, 환경청)에서 큰 문제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Q. 오알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직의 구성원들이 젊다 보니 자유롭게 소통하며 회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오알캠"이라는 모티브처럼 자유로운 분위기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회사 내에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는 처음인지라, 복지로 커피나 간식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Q.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는 일들에서 교만하지 않게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자신이 너무 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Q. 요즘 빠져있는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꾸준히 책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책 100권 읽기' 목표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많이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요즘에는 AI에 관심이 많아져서 AI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있는데, Chat GPT나 Geminai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Invideo AI를 통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것이 최근 저의 관심사입니다.

### Q. 회사에 적응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분은 누구인가요?

환경안전이라는 업무는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지원 부서이다 보니,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먼저 저희 팀장님과 팀원들이 업무 적응을 위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조금 더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MTV 제조팀의 박진희 팀장님과 그 외 팀원분들 덕분에 PSM이나 환경청 점검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가로 항상 웃으면서 장난을 걸어주시는 정일용 직장님 덕분에 회사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Q. 본인은 환경안전팀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도움을 주며 서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팀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하며 현재까지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와 주변이 같이 성장하는데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인사총무팀

이현우 사원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총무팀에서 복리후생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우 사원입니다.

### Q. 첫 출근 날 기억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와...저분 성함이 뭐지??’를 속으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 건네주시는 임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 Q. 오알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직원분들께서 본인의 업무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분들께서도 실무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 Q. 좌우명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프랭클린 플래너를 오래 써왔습니다. 매년 플래너 속지를 바꿀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 문장을 적어놓고는 하는데, 그중 한 문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호의는 받은 만큼 돌려주되, 악의는 담아두고 잊지 말 것.” 입니다! 당시 장교로 군 생활 중이었는데, 나를 잘 지켜온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Q. 요즘 빠져있는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예전에 서평 블로그와 독서 모임을 오래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서야 다시 책을 잡고 있습니다. 사내 도서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Q. 회사에 적응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분은 누구인가요?

홍홍기 수석님, 업무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이, ‘유머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서도 직접 움직이시려고 솔선하시고, 권위의식 없이 부하직원분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 Q. 본인은 인사총무팀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나이 많은 귀염둥이 막내...?,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데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 O!Cafe 김해리 매니저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최수진 연구원

오알켄인의 충전소 O!Cafe, 하루를 버틸 에너지원인 커피와 각종 간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야무지고 센스 넘치는 카페 매니저님이 계셔서 O!Cafe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또 세심하게 O!Cafe를 책임져 주고 계신 김해리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입사한 카페 매니저 김해리라고 합니다!

### Q. 손도 정말 빠르시고, 친절하셔서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카페 창업이 꿈이라서 호텔 경영 쪽으로 과를 나왔어요. 이후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카페에서 7~8년 동안 쪽 일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짧게 있었고, 베이커리 카페와 개인 카페에서도 오랫동안 일했어요. 전에 사내 카페에서도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임직원만을 위한 카페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쉽진 않겠지만 제 가게를 차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 Q. 카페 근무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원래 사람 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방면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사람으로 힘들어지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계속 서서 왔다 갔다가 하고 커피 내리고 이런 것들이 체력적으로 살짝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커피 맛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 Q. 오알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근무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직원분이 카페에 오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덕분에 아침에 카페에 오는 게 너무 즐겁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잘하고 있나 혼자 생각이 많던 때라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 MBTI 완전 T인데 갑자기 F가 되어서 친구한테 자랑까지 했어요^\_^ 이 에피소드는 아마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아! 또 게시판에 칭찬 글 올라온 것도 보이는 곳에 붙여줬어요. 근무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 Q. 오알켄 임직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이런 임직원을 위한 조식이 있는 카페가 처음이라서 아침으로 어떤 메뉴가 좋을지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런 메뉴 먹고 싶어요” “이 메뉴 맛있어요” 하는 피드백을 주시면 참고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편하게 많이 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메뉴로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많이 바쁠까 봐 걱정했는데 항상 재촉도 안 하시고 묵묵하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Q. 취미가 궁금해요!

평일에는 퇴근하고 필라테스를 주로하고, 주말에는 캠핑이나 여행 자주 다니면서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캠핑하러 갔다가 근처 카페를 가서 그 카페의 분위기와 커피 맛을 느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양평에 촌캉스를 갔다가 ‘하우스’라는 베이커리 카페에 갔는데 빵이 진짜 맛있었어요. 또 안산에서는 한양대 근처에 특색 있는 카페가 많아서 요즘엔 그 근처로도 많이 가고 있어요. 저는 집순이는 절대 못 해서 주말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편입니다ㅎㅎ

### Q. 2025년도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도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데 끝맺음을 잘 못 맺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계속 도전하되 끝맺음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 덕분에 2025년 목표가 생겨서 메모장에도 적어놨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일에 끝맺음을 맺자! 정열적인 P가 되자!



# ... 중국 법인 제조기술센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 법인)  
인터뷰 대상  
Chen Biao 이사

## Q. 중국 법인 제조기술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조기술센터는 전투 시 군대에 총알과 식량을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영업팀이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조 기술 센터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생산, 품질, 안전 및 환경, 유지보수 등으로 나뉘며, 관련 사안에 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일 아침 부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환경, 유지보수 관련 파트는 제조 기술 센터 내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회사 전체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위한 서비스를 모든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Q. 팀 분위기가 궁금해요!

팀 분위기의 특징을 ‘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팀과 물류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 팀에 업무가 몰릴 경우, 다른 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협업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작업의 효율을 높입니다.

## Q. 제조기술센터의 주요 업무 방향은 무엇인가요?

절강 공장은 오알켄 신규 공장으로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시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다가오는 대규모 양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Q. 특별한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우리가 시험 생산한 첫 번째 제품이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고객사에 증명했을 때, 팀의 모든 구성원이 진심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는 절강 공장의 미래가 우리 손에서 시작되었고, 회사의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Q. 초반, 공장 운영이 안정화되기까지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숙련된 운영 기술과 능동적 태도를 갖춘 생산팀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태도의 직원들로 인해 현장 관리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본사 관련 부서의 현장 지원과 현장 관리자의 노력, 관리 부서의 협력을 통해 현재는 생산팀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Q. 현재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요?

신규 공장으로서 인력 안정성, 운영 표준화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본사를 통해 현장 지도를 해줄 인력을 지원받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 직원을 신천 법인에서 절강 법인으로 파견했습니다. 또한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는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Q. 제조기술센터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향후 6개월 내 모든 관계자의 노력을 통하여 절강 공장의 생산 능력을 설계 용량의 40%까지 끌어올릴 것을 기대합니다. 절강 공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절강 공장의 생산성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 2차 절강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점진적인 투자를 통해 신뢰성 테스트 실험실을 설립, 공장의 품질 검증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본사의 부담을 줄이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고객사에 관련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Q. 팀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면서 다른 직책의 기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재다능한 직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회사의 요구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제조 기술 센터 내에서 직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 순환 근무제를 시행하고 싶습니다.



# Inside ORCHEM

## One Dream

우리는 고객사, 지역 사회, 임직원들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임직원의 행복에서 첫 걸음을 시작해 한국 매출 1위, 총매출 2000억원, 글로벌 top3에 도달하며 모두가 사랑하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  
·  
·  
·  
·

## ORCHEM VINA, 한 걸음 더 가까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장의 길 : 비엠티 산업대학교와의 만남을 돌아보며

사진/글. 사내 기자단 Jang 사원 (베트남 법인)

### “사랑받는 회사가 되자”

이 말은 오알켄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미션입니다. 단지 사업의 성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의 인재들까지도 함께 웃을 수 있는 회사를 꿈꿔 왔습니다.

그 꿈에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5월 우리는 푸토성의 비엠티 산업대학교를 찾았습니다. 1956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지역 내에서 화학과 공학 분야에 있어 두드러진 전문성을 자랑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특히, ‘응용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비전은 실무에 강한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오알켄의 인재상과도 잘 맞닿아 있습니다.

학교 측과의 대화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바라보는 ‘좋은 인재’의 모습과, 그들이 어떤 현장에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종이 위의 채용 공고가 아니라, 실습과 장학제도를 통해 직접 함께 키우는 채용 방식으로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은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서 현장을 경험하고, 함께 일할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 제도를 통해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졸업 후에는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만남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들이 쌓이고 이어진다면, 단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진심으로 연결된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다가오는 4분기에는 내년 실습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 하나의 제도와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지역사회와 함께 걸으며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인재 발굴 및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요 협력 논의 내용]

#### 1. 맞춤형 실습생 프로그램 운영

대상 분야: R&D, 기술지원, 환경 등

운영 방식: 학교 추천 → 3개월간 사내 실습 → 평가 후 채용 여부 결정

시행 시기: 매년 1월 또는 4월 예정

#### 2. 장학금 연계 인재 확보 제도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오알켄에 근무하는 조건의 제도





# ESG 탄생 SLOGAN

## ESG 슬로건

E코를 지키고  
S사람을 존중하고  
G치있게 경영하자 ♥

## ESG 슬로건 소개

에너지 저감 실천 및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지구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 및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람 중심 상생경영에 앞장서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오알켄이 되고자 합니다.

✦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최수진 연구원

오알켄은 3월 17일 ~ 3월 24일 ESG 슬로건 선정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ESG 슬로건을 통해 오알켄의 ESG 가치를 알리고,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공모전은 오알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출품작 중 직원 선호도 조사와 팀장 및 CA 3기의 의견 수렴을 통해 1등부터 3등까지 선정했습니다. 1등은 연구소 이석희 선임 연구원님께 돌아갔는데요, ESG의 의미가 알기 쉽게 골고루 잘 담겨있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선정된 슬로건은 오알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ESG 활동 및 홍보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 우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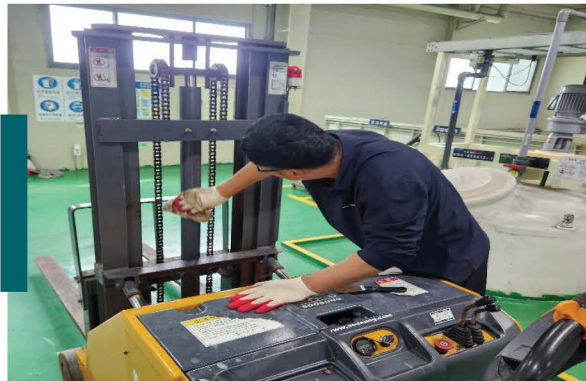


ESG 슬로건 공모전 1등  
연구소 이석희 선임 연구원

이번 ESG 슬로건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E)에코를 지키고, (S)사람을 존중하고, (G)가치있게 경영하자!”는 슬로건 속에 지속 가능성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오알켄이 이뤄 나갈 ESG 경영의 여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구미 ...  
구미



O!Clean ...  
O!Cl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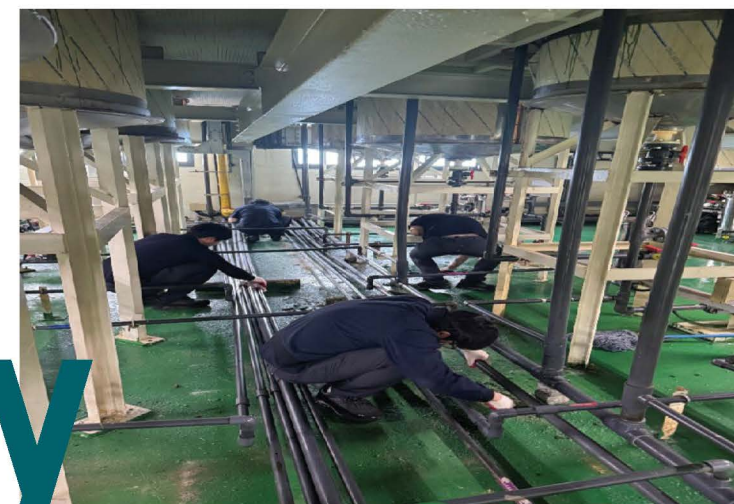


구미 공장에서는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전 구성원이 함께 'O! Cleaning da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정5S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현장 습관화하기'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결 활동들을 펼쳤는데요, 올해는 '4無'라는 주제로 냄새, 물방울, 세척수, 이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3정5S를 실천해 고품질 제품을 양산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월에는 이물 제거, 2월에는 물방울 제거를 주요 과제로 삼아 이물, 물방울 방지 및 관리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고, 현장 곳곳의 이물과 물방울을 제거했습니다. 3월에는 냄새, 폐수 방지에 집중하여 품질실 청결 관리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구미 공장은 매달 주요 테마를 지정해 현장 곳곳의 청결과 도색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3정5S를 운영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현장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현장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구미 공장 직원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Day ...  
Day





명확한 꿈을 공유한 우리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이유를 이해합니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오알켄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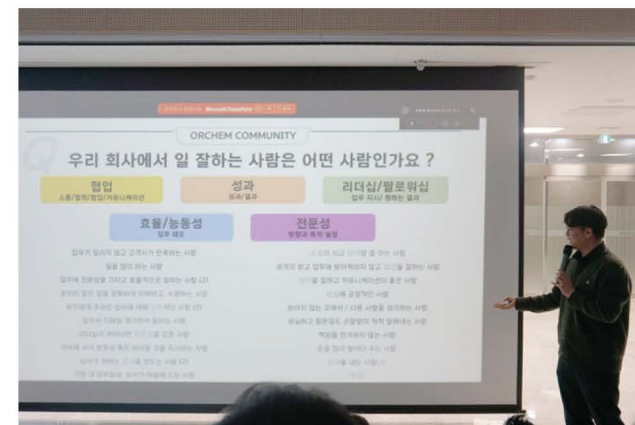
·  
·  
·  
·  
·

## 2025 1분기 타운홀 미팅 :오알켄 ‘일 잘하는 문화 만들기’

오알켄 1분기 타운홀 미팅이 4월 11일 4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분기 경영 현황 보고와 주요 소식을 짚어보며 오알켄의 근황을 나누었는데,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특별히 CA 3기가 ‘일 잘하는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사전 배포한 설문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 잘하는 문화 만들기!

오알켄인이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일까요? 설문 결과 총 5가지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협업(소통), 성과, 리더십(팔로워십), 효율성(능동성), 전문성**인데, 그렇다면 ‘일 잘하는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얼마나 일치 할까요? 오알켄인이 꼽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의 키워드로는 **마인드(책임감, 배려심), 협업(소통), 전문성, 방향성(목적), 성과**가 나왔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친화적인 사람’ 등의 답변이 있는 걸 보면,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서도, 배려심 있는 직원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알켄인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동기 부여 요소로는 **칭찬과 인정**에 대한 답변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오알켄에 ‘일잘러’가 많아지려면 많은 칭찬과 격려가 오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설문 결과에 대한 오알켄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 봐야겠죠?





**CA3기 신상희 선임 연구원**

공통적인 답변이 많이 나와서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협업,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개개인이 일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 협업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CA3기 오동환 선임 연구원**

업무 동기 부여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칭찬이 있었는데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보면 최상위에 있는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알켄인이 업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하 전무님**

설문 결과를 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칭찬에 대한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잘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 볼 것인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겠어요.

**이재현 대표님**

앞서 공통된 의견들도 보이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이 일을 잘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효율성을 강조해 왔어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민과 생각이 많아야 해요. 그래서 업무 시작 전,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문화'에 대한 정답입니다.

· · · · ·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엔 많은 의미가 내포된 것 같아요. 일을 잘한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다는 의미일 테고요, 또 여러 사람들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배려심 깊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각자가 정의하는 '일잘러'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답변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 같죠? 이제 각자 자신의 업무 태도를 점검해 보고 진정한 '일잘러'로 거듭나봅시다!

타운홀 미팅은 이재현 대표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변수들이 생겨나도 오알켄인 분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분기 타운홀 미팅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 Can Meeting [구매팀]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김시연 연구원

오알켄은 본부, 팀 간의 화합과 소통,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Can Meeting’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답니다! 올해 팀 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구매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Can Meeting을 적극 활용해 팀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들어보아요!



## 구매팀

팀장 | 최대성 책임  
팀원 | 전용빈 선임  
심규환 사원

### Q.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매팀은 오알켄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 부자재 구매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전용빈 선임은 내자 구매와 협력업체 평가 및 관리와 월 단위 구매 계획 수립 및 마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매 프로세스 관리와 ERP 리스크 단가 관리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사원은 외자/외주 구매와 그에 대한 부자재 구매 그리고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법률 쪽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 Q. 캔미팅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 전용빈 선임

저희는 파티장 한 곳을 대여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토론과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고, 다음에는 저녁 식사 그리고 ‘광란의 파티’까지 진행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주로 친밀감 형성과 유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액티비티나 캠핑 등의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캔미팅이 변화가 많았던 시기에 딱 맞게 R&R에 대한 재분장을 중점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맡던 외자 구매에서 내자 구매로 잘 분장했고, 규환 사원도 MRO에서 외자 구매로 잘 분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광란의 파티’에서 팀장님의 몰랐던 모습을 또 알아가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란의 파티’는 별 건 아니고, 노래방이었는데요, 팀장님이 외모만 성시경을 닮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 계신다면, 저희 팀 회식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 Q. 이번 캔미팅은 어떤 취지로 진행되었나요?

#### 최대성 책임

저희가 이번에 캔미팅을 진행할 즈음 인사이드가 있었어요. 구매자재팀에서 온전히 구매팀으로 변경 되면서 자재 파트가 분할되었습니다. 파트 한 부분이 조정되는 거다 보니 업무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번 캔미팅은 업무를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생길 문제점 등을 같이 도출하고 또 과제화해서 직접 논의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세워보는 게 주요 취지였던 거 같아요.

### Q. 캔미팅에서 새롭게 알게 된 팀원들의 성향이나 강점이 있다면?

#### 심규환 사원

입사하고 1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팀장님은 팀원들한테 과제를 내주시면 항상 생각하고 일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이번 캔미팅에서도 팀장님의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더욱 잘 알게 되었고,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저희의 잘못된 부분도 잘 짚어주시고 성장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전용빈 선임님은 아직 선임이지만, 팀장만큼의 리더십과 업무 능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Q. 다음 캔미팅에 대한 계획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최대성 책임

캔미팅이 지금처럼 방식이나 주제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열려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이든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구매팀처럼 업무 비중이 높은 활동이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팀워크에 더 중점으로 댈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캔미팅은 팀원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팀워크 중점으로 활동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심규환 사원

이번 캔미팅은 목적이 명확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는 일정 이후의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서 팀원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 캔미팅은 시기상 꼭 필요했던 활동이라 유익했고, 특히 ‘광란의 파티’가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 ORCHEM VINA

## 법 준수 인식 고취를 위한 특별 교육

: 건강한 조직,

건강한 근무 환경 만들기

사진/글. 사내 기자단 Jang 사원 (베트남 법인)



ORCHEM VINA는 임직원들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29일 경제 경찰팀과 협력하여 특별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경찰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적 병폐와 범죄를 예방하는 법도 함께 익혔습니다.

ORCHEM VINA는 임직원들에게 법 준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의무를 넘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ORCHEM VINA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들을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건강한 조직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ORCHEM VINA는 끊임 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ORCHEM

## 정결 사무실 만들기



3층 통합사무실 정결 활동이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통합 사무실 내 캐비닛 현황 파악과 사무실 이전 및 레이아웃 구성이 2월 한 달간 진행되었구요, 3월에는 사무실 책상 및 캐비닛 이전과 정리를 시행했으며, 4월에는 투표를 통해 정결 활동 우수자를 선정했습니다.

책상 정결 활동 우수자 (깔끔상)에는 인사총무팀 이현우 사원이 선정되었고, 책상을 예쁘게 꾸민 직원에는 재무회계팀 안소희 사원이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쪽이상은 인사총무팀의 김채연 선임이 수상했습니다.



→ IT팀 캐비닛

캐비닛 정결 활동 우수팀은 IT팀이 수상했는데요, 다용도 바스켓에 물품별로 분류해 정리한 모습이 정말 가지런하고 깔끔합니다! 수상자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 택배는 사랑을 싣고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뭐라도 챙겨주고픈 가정의 달, 5월! 오알کم은 이러한 임직원분들의 마음을 알고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택배는 사랑을 싣고'인데요, 가족과 관련된 사연을 응모하면 원하는 상품을 응모자의 가족에게 배송해 드리는 이벤트였습니다.

임직원분들이 정성껏 쓴 사연 속에서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응모자분들이 직접 고른 선물에도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고른 선물이 깜짝 전달되다 보니, 응모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응모자분들 뿐 아니라, 선물을 수령하신 가족분께도 감사 인사를 받게 되니 이벤트를 준비한 입장으로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오알کم도 임직원분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기만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들 읽어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요.

딸을 가진 아빠가  
어제보다 오늘이 예쁜 딸이  
너무 빨리 자라서  
안타까워하며 쓴 시입니다.



그렇게 나는..

단단한 껍질 틈을  
조심스레 밀어낸  
작고 고요한 올림  
그렇게 나는 아빠가 되었다.

의사 될래 가수 될래-  
하고 뜯게 참 많은 너는  
젖은 날개를 말리는 새처럼  
숨 고르며 날개를 펴고

걸으면 부딪힐까  
뛰면 넘어질까  
웅크려 품은 새장처럼  
나는 너를 품고 있었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  
너의 날개를 스치고  
고요히 열리는  
나의 품을 지나면

그렇게 너는 날아갈테고  
그렇게 나는 남겨지겠지  
그 날이 쉬이 오지 말기를  
내 어미도 바랐겠지

나도 그렇게 떠났고  
너도 그렇게 품기를 바란다.

동생이 둘째를 출산했는데  
열심히 젖병 세척하고 소독하고 자려고 하면  
아기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잠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젖병을 관측!!!! 설거지 하지 말고 자!!라며  
힘내라고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요  
♥저출산 극복♥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께  
출근 때도 입을 수 있는 편한  
트레이닝복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일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벗어 두고  
편하게 일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의 자리를 묵묵히 메우고 계실 배우자님,  
항상 밝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을 어린 자녀님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기에  
해외 주재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겨울이

본가에 늦둥이로 합류한 11살 겨울이와  
3살 루루가 있는데요, (고양이에요)  
물통이 없어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마시고 있어요.  
루루는 어항 속 물을 매일 마시고 있는데,  
매운탕 처럼 마시는 것 같아요.  
두 고양이를 보며 부모님이 내심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  
급수기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취미가 야구 관람이신 부모님 덕분에  
가족 모두 자연스럽게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건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야구를 관람하러 갈 때마다  
가족과 함께 응원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많이 낡아버린 아버지의  
야구 유니폼을 바꿔 드리고 싶어요.  
새 유니폼과 함께 새로운 추억 계속  
쌓아가고 싶습니다!



해외에 있는 탓에 중요한 가정 일이  
있을 때마다 곁에서 챙겨 드리지 못해  
항상 마음이 쓰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 생신이셨는데, 회사 통해서  
깜짝 선물을 받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Sulwhasoo

고향을 떠나 멀리 자리를 잡은 이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 뵙지 못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손 마사지기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남동생이 이번에 딸을 낳았습니다.  
동생이 낳은 건 아니고 제수씨가 낳았습니다.  
벌써부터 출근은 뒤로하고  
씻지도 않고 산후조리원으로 뛰쳐나가는  
딸 바보 예약입니다.  
육아로 힘들 날들을 앞두고있는 동생 부부에게  
힘이 될 만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최근 부모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직은 짐 정리가 덜 되어 어수선하지만,  
함께 공간을 꾸며 나가는 시간이 즐겁고 기쁩니다.  
마침 간이 탁상을 새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시니,  
꼭 필요한 선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집 문제로 고민 많았을 부모님께  
기분 좋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부모님을 위해  
이제는 제가 그 곁을 지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회복 중인 부모님께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가 많은 집안이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노고와 정신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세대가 변해도 긴 시간 꾸준히  
그 일을 이어주신 할머니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삶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종종 산책을 하시는데,  
발 편한 운동화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 HAPPY Children's day

## 중국 법인, 따뜻한 마음을 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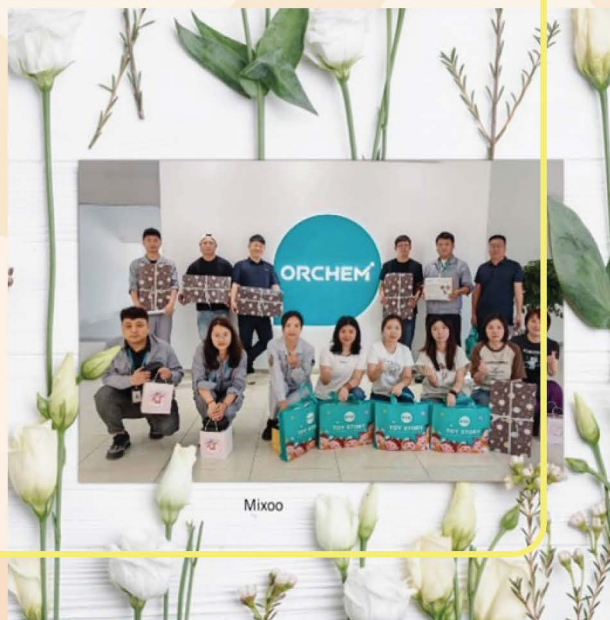
사진/글.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 법인)

### 심천 법인

중국 법인은 6월 1일,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직원 사랑, 가족 보답'이라는 오알켄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돌봄 행사"를 기획했는데, 庞广磊 중국 법인 총괄은 회사를 대표해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전 직원 자녀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아이들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과학 탐구를 위한 망원경, 학습과 오락에 활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퍼즐 등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심 어린 선물들 덕분에 아이들은 기념일의 즐거움을 느끼고, 직원과 가족들은 오알켄의 '사람 중심'이라는 따뜻한 문화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 절강 법인



행사 당일, 각 부서 직원이 회사 프런트에 모여 선물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실용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선물이라 아이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다”라며 “회사에서 가족에게까지 많은 관심을 주셔서 자부심과 따뜻함을 느낀다”라고 전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가정의 행복은 직원들의 평안한 마음과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위한 초석입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단순한 선물 전달이 아닌, 직원을 위한 배려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앞으로도 중국 법인은 한국 본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은 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이 더욱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 ... ORC Solution 국내 여행지 소개 [부산 편]

사진/글. 사내 기자단 박승영기자 (ORC Solution)

안녕하세요 ORC솔루션 박승영 기자입니다. 봄엔 꽃구경 잘 다녀오셨는지요! 한동안 날씨가 오락가락하더니 벌써 여름이 왔어요.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크니, 감기 걸리지 않게 다들 몸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 ◆ 부산 시민공원

결혼하는 친형의 부탁으로 부산에 스냅 사진을 찍으러 다녀왔습니다. 당일 오후 비 소식이 있어서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산 시민공원에 벚꽃도 피고 푸릇푸릇한 나무들도 많아서 사진 찍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벚꽃이 흠날려 사진이 나름대로 운치 있게 나오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인물 사진이다 보니 드라마틱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풍경 사진 위주로 찍다 인물 사진을 오랜만에 찍으니 좀 어색한 느낌이 없진 않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드는 사진이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형 눈엔 마음에 든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 ◆ 뮤지엄 원 <신화 : 시작하는 이야기>

스냅 사진 촬영 후엔, 해운대 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뮤지엄 원에 전시되고 있는 '신화 : 시작하는 이야기'를 감상했는데, 가상 신화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새롭게 써내려 가는 신화가 될 개인에 서사에 주목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요. 영상 작품 외에도, 설치,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작품부터 파격적이고 기괴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제일 압도하는 건 미디어 아트였습니다. 바닥부터 벽면까지를 뒤덮은 화면에 여러 가지 주제의 작품들이 재생되는데, 알록달록한 색상의 미디어 아트를 보고 있으면 빨려 들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디어 아트 전시 외에도 눈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그림 작품들이 많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시는 8월 말까지 진행되니 여름에 부산에 방문하신다면 일정에 포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림, 영상, 조각 등 100여 점 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2시간 정도 소요 되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전시나 여행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 2분기 오알켄 소식

- 4월 7일 2025년도 1차 PCB 자격증 중급과정(SL) 합격자  
안현규 선임연구원, 장상원 선임연구원, 조재형 연구원
- 4월 11일 1분기 타운홀 미팅 및 신규 출장 시스템 설명회 진행
- 4월 14일 ESG 공모전 결과 발표  
통합 사무실 정결 사무실 만들기 시상
- 4월 21일~5월 1일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택배는 사랑을 싣고' 진행
- 4월 30일 중장기 기술 로드맵 워크샵



4월 30일 연구소, 마케팅 기획팀, 영업팀, 전사기획팀이 모여 “Check Now, Design the Future”라는 주제로 중장기 기술 로드맵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하며, 중장기 전략과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5월 14일 구미 공장 5대 아차 사고 유형별시나리오 훈련



구미 공장은 5월 14일 '5대 아차 사고 유형별 사고 시나리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아차 사고 유형은 '소분 구역 IBC 탱크 소분 후 밸브 잠금 조치 미흡으로 인한 넘침 사고' '지게차 운행 중 팔레트에 적재된 드럼통 낙하로 인한 누출 사고' '일반 창고 드럼 자재 소분 중 지그 체결 미흡으로 인한 원자재 누출 사고' '폐기물 보관함(암롤박스)에서 미량의 원자재들이 반응하여 발생하는 화재' '제조 탱크 원자재 투입 시 톤백이 찢어져 현장 바닥에 고상 원자재가 비산하는 사고' 총 5가지로, 구미 공장 전 직원이 참여하여 유형에 따른 대응법을 익혔습니다. 본사에서는 김남하 전무님, 김세진 수석님, 박진희 책임님, 원오훈 책임님이 참관하셨습니다.

- 6월 오알켄 공식 블로그 리뉴얼



오알켄 블로그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오알켄의 CI 색상과 마스코트, 기업 미션이 곳곳에 담겨 있어 한층 더 오알켄다워졌습니다! 오알켄의 소소한 일상 부터 주요 소식까지 업로드 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세요! 게시물 공감♥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 6월 4일 '2025년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선정

오알켄이 6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2025년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연구실 환경 개선 및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 6월 17~18일 중장기 계획 수립 미니 워크샵



오알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미니 워크숍이 4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7일에는 팀장급, 18일에는 주니어급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오알켄의 새로운 비전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6월 26~27일 임원 워크샵



오알켄 임원 워크샵이 'Next Leap 2030, 함께 만드는 ORCHEM'이라는 주제로 26, 27일 1박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팀장 및 주니어 미니 워크샵에서 나눈 의견을 공유하며 오알켄의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인 미래를 그려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음식 그림 퀴즈



다음 그림을 보고 **나라별 대표 음식**을 맞춰보세요!  
정답을 작성하여 김정아 사원(junga9434)에게 이메일 제출하면, 랜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① 한국



② 중국



③ 베트남



④ 일본



⑤ 이탈리아



⑥ 인도



⑦ 멕시코

